

샬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



실로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로 묶여있던 경제가 서서히 돌아가면서 온 나라가 활력을 되찾는 듯 하였는데, 갑자기 두 번의 태풍 피해로 나라 곳곳이 물에 잠기게 되었고,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정부의 부패를 타도하는 데모가 발생하는 등 과테말라는 여전히 총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 곳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그래도 어김없이 길고 긴 우기가 끝나고 건기에 들어서니 고산지대에서 맞는 햇빛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지난 3 개월간의 여정을 나누오니 동역하는 기쁨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올려 드려 주시는 중보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늘 주님께서 일하심을 저희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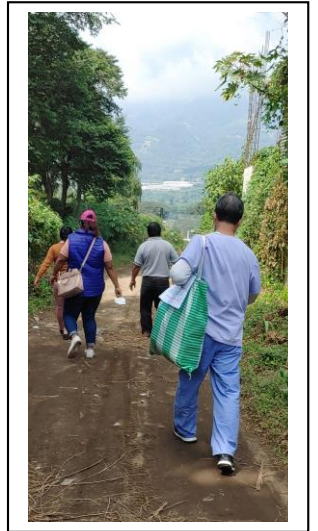
1.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구제 사역은 감사하게도 여러 교회와 후원자들의 정성어린 지원금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에이에 있는 <샬롬 장애인 선교회>의 긴급 구제 프로젝트인 “사랑의 양식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게 되어 더 많은 지역의 빈민층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많은 장애인들과 장애 아동들을 여러 지역에서 살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일반 빈민보다 더 처참한 상황에 있음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애 가정들을 찾기 위해 저희 현지인 의료팀원들에게 의뢰를 하니 제각기 본인의 연고가 있는 곳으로 저희를 안내하였는데, 산골에도 마을에도 도시에도 소규모 장애 단체들이 많이 있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동안 과테말라에서 보지 못하던 현실이었습니다 대부분 2, 30 년 전에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단체들을 설립하였으나 이미 철수한 후라서 펀드가 끊긴 채 자체적인 운영이 어려워 너무도 열악한 상태로 남아있지만, 나름대로 주위 곳곳에 있는 장애 가족들을 열심히 돌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아과 의사의 소개로 과테말라에 유일하게 있는 아동병원에서 장애 아동들을 재활 치료하는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가 보니, 날마다 새로운 아동들이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멀리서부터 내원하고 있는데, 너무 어린 아기들이 장애를 안고 태어난 모습에 맘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장애 단체마다 저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물리 치료/언어 치료/의약품 등인데, 앞으로 아동병원 물리 치료실과 물리 치료사 양성 기관, 그리고 의사 그룹과 협력하여 종합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기도하며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저희로 하여금 당장

급한 <먹는 양식>으로 섬기게 하시지만, 앞으로 그들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섬기게 하실지요...



2.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은 이동의료사역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 팀 중에 은퇴한 현지인 의사인 Dr. Juan 이 담대하게 주선하여 2 년 전 대규모로 화산이 터졌던 지역 안 쪽에 위치한 고립된 마을로 들어가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트럭을 빌려 강을 다섯이나 건너 들어간 곳은 열대 밀림 지역이라 짙은 푸르름이 우거진 청정지역이지만, 정부의 손이 안 닿는 곳이라 의사도 보건소도 없는 실정입니다 총 119 가정 온 주민이 다 나와서 환영식까지 해주니 너무 황송했습니다 정성스럽게 꾸려 온 식량 보따리를 가정마다 나누어 주고 무료 진료를 하니 고맙다고 바나나를 한 보따리 싸 주는 풍습이 우리와 너무 흡사한 모습입니다 너무 외진 곳이라 어려운 환경이지만 오히려 순수한 그들이 아름답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는 마야 족 순수 혈통인 인디언들이 따로 고립되어 사는 마을들도 여럿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을 늘 드나들며 도움을 주는 현지인과 Dr. Juan 의 요청이 있어서 앞으로 그 곳에서도 금홀 사역과 이동 진료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3. 지난 번 기도편지에서 말씀드린대로 호수로 이동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실 지 기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한 현지인 목사님의 안내로 장애센타를 방문코자 다시 호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우연히 한 클리닉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콜롬비아 출신 선교사이자 여의사가 외롭게 병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한 선교단체에서 학교와 병원을 지어 운영하고 있는데, 1 년에 한 번만 의사들이 방문하여 선교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많은 치과 장비와 병원 시설을 둘러보며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가서 그 지역 장애 아동들에게 사랑의 양식을 전달할 계획인데, 저희 팀 치과의사 한 분과 함께 그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인도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

- 살롬 장애인 선교회의 사랑의 양식 보내기 프로젝트로 인하여 **장애인 사역**에 눈을 뜨게 하심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의료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저희 팀 **현지인 의료진**들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자원하여 이동의료사역을 계획하고 펼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 **호수 지역**으로 주거지와 사역지를 옮기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 **동역하는 모든 교회들과 후원자들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 한국에 계신 양가 **노모님들의 건강**과 미국에 있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과테말라에서,

2020 년 11 월 고성봉/현옥 선교사 올림

